

한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커졌다”

황상필 계량모형부장 “작년 6월 중국 1차 금융불안 때 49.5로 올라간 뒤 지금까지 높은 수준 지속”

현재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상필 한국은행 계량모형부장은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학회와 한국은행 주최로 열린 '내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거시금융정책'을 주제로 한 추계 공동 정책심포지엄에서 '우리 경제의 내내·외 여건 변화와 경제 불확실성'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거시경제 불확실성 지표 측정 결과,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00까지 치솟은 이후 20~40 안팎을 맴돌다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58.4까지 뛰어올랐다. 이후 다시 20~40선에서 머무르다 지난해 6월 중국 1차 금융불안 때 49.5로 올라간 뒤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대외변수의 불확실성 기여도가 금융위기 이후 대폭 상승했다. 금융위기 이전(2004년 1월~2007년 12월) 23%에 불과했던 대외변수 불확실성 기여도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2008년 1월~2015년 8월) 48%, 중국 금융불안 이후(2015년 9월~2016년 3월) 40%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황 부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내내·외 여건이 여의치 못한 데다 성장경로상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대외여건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이 경기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거시경제정책을 오랫동안 완화적으로 운용해 왔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교역 증가세도 크게 둔화됐다.



이것이 '더 뉴 트랙스' 한국지엠이 17일 서울 강남구 송은아트스페이스에서 더 뉴 트랙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날 공개된 더 뉴 트랙스에는 세보레의 새로운 시그니처 디자인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 듀어 포트 그릴이 적용됐다. 또 펜더 라인에서 헤드램프 이어지는 날렵한 선의 조합을 강조, 세련되면서 과감한 스타일로 디자인됐다.

또 미 연준 금리인상 기대변화, 신중국 증시 불안, 국제유가 약세,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업구조조정, 가계부채 문제 등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특히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1분기 기준 14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평균 130.5%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업부실로 은행의

여신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황 부장은 “이러한 내내·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크게 상승한 거시경제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거시경제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심리 위축, 금융비용 상승 등의 부정적 영향과 함께 예비적 저축 유인 확대 등을 통해 소비, 투자 등 내수가 위축된다는 것이다. 또 특정 국가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해당 국가의 수입수요가 감소하고 이는 다시 직·간접무역경로를 통해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중국 충격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불확실성 확대는 실물변수의 정책변화 민감도를 약화시켜 통화정책 효과를 제약할 가능성도 있다. 금리인하 시 투자비용 감소 등에 따라 투자가 증가하지만,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경제행위 위축 등 심중효과가 발생하면서 금리인하 효과를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시스

폭발 없는 배터리 특허출원 증가

고체 전해질 리튬이차전지 국제출원, 일본이 가장 많아

최근 스마트폰 폭발사고로 화재나 폭발위험이 없는 안정화된 고체 전해질의 리튬이차전지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5까지 최근 10년간 고체 전해질 이차전지 관련 PCT 국제출원 분석결과 2010년까지 연 10여건 정도에 불과하던 것이 2011년 25건으로 증가하면서 2012년 23건, 2013년 45건, 2014년 28건, 2015년 50건 등 점차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기존 리튬이차전지에 이용되는 액체전해질의 경우 전해액의 분해 반응 등으로 인해 발화, 폭발 위험성이 존재해 최근에는 파손위험이 없는 고체전해질이 각광받고 있다.

고체전해질 이차전지의 출원인인 일본이 가장 많고 이어 히타치 10건(4.6%), 쏘니 8건(3.7%),

LG화학 7건(3.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출원인 국적별로는 일본 133건(60.7%), 미국 40건(18.3%), 한국 20건(9.1%), 독일 17건(7.8%), 중국 5건(2.3%)의 순으로 조사돼 일본이 강세다.

출원기술로는 ▲고온 열처리 공정시간이 길지만 안정성이 우수한 산화물(oxide)계 소재가 67건(30.6%) ▲수분과 산소에 취약하지만 이온 전도도가 높은 황화물(sulfide)계 소재 44건(20.1%) ▲리튬 폴리머전지로 고분자(polymer)계 소재 31건(14.2%) ▲인산염(phosphate)계 소재 17건(7.8%)으로 나타났다.

모두 기존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액체전해질을 고체로 대체하는 핵심소재 개발에 관한 것으로 점차 고체전해질 분야의 특허는 증가할 것으로 특허청은 보고 있다. /뉴시스

9월 '달러화 예금' 1달 만에 감소

전월대비 4억달러 ↓ ... 개인 7.7억달러 ↑ · 기업 11.7억 달러 ↓

달러화 예금이 9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기업들의 달러화 예금이 줄어들면서 전체 외화예금 잔액도 9월 달만에 내림세를 나타냈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9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외화예금 잔액은 665억 달러로 전월 대비 8억4000만달러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던 거주자 외화예금도 9월 달만에 줄어들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 등이 보유한 국내 외화예금을 뜻한다.

통화별로는 달러화예금 잔액이 4억 달러 줄어든 565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한은에 따르면 달러화예금이 줄어든 것은 주로 대기업의 차입금 상환을 위한 예금인출 등으로 기업의 달러화 예금이 줄어든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달러화예금은 468억4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11억7000만 달러 줄고, 개인 달러화예금은 7억7000달러 늘어난 96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잔액은 565억2000만 달러였다.

한은 관계자는 “부여결제대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개인들의 경우 비교적 달러가 쌀 때 여행·유학자금 등으로 미리 달러를 사두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향후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달러화에 대한 투자도 여전히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유로화 예금은 증권사의 만기도래 정기예금 인출 등으로 전월 보다 4000만 달러 감소한 30억5000만 달러를 나타냈다.

위안화예금 역시 증권사의 만기도래 정기예금 인출 등으로 전월 대비 3억 달러 줄어든 16억 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지난 2014년 10월 21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금리 차이 등에 따른 차익거래 유인이 사라지면서 10억 달러대까지 규모가 줄었다.

이밖에 엔화예금은 증권사의 엔화포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등으로 전월 대비 9000만 달러 증가한 38억4000만 달러, 영국 파운드 및 호주 달러 등 기타통화예금은 1억9000만 달러 줄어든 14억9000만 달러를 나타냈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은 16억9000만 달러 감소한 53억 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8억5000만 달러 늘어난 112억 달러를 나타냈다. /뉴시스

“아이폰7으로 ‘갤럭시 쇼크’ 만회하자”

이통사, 보조금 조기 발표 · 특화 프로그램으로 특수잡기 나서

프리미엄폰 기대주였던 갤럭시노트 7이 불명예 퇴장하면서 아이폰7에 거는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아이폰7과 아이폰7플러스가 21일 국내 공식 출시되는 가운데 이통통신3사는 공식지원금(일명 보조금)을 조기 발표하고 아이폰7 특화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특수잡기에 나섰다.

16일 이통통신업계에 따르면 아이폰 7은 예약판매가 시작된 14일에만 사전주문 10만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폰7은 예약판매 첫날 조기 마감 기록을 갈아치우며 순항했다.

이동통신3사는 아이폰7 공식지원금

을 조기 발표하며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아이폰7 출고가는 86만9000원(32GB), 99만9900원(128GB), 113만800원(256GB)으로 정해졌다. 아이폰7 플러스 모델은 102만1900원(32GB), 115만2800원(128GB)원이다. 아이폰7 플러스 256GB 모델은 128만3700원이다.

아이폰7 128GB 기준으로 5만원대 요금의 경우 SK텔레콤은 6만1000원, KT 5만8000원, LG유플러스 6만원의 보조금을 책정했다. 공식지원금과 20% 요금할인(24개월 약정 시)을 비교해봤을 때 아이폰7 시리즈는 20%

요금할인을 받는게 유리하다.

SK텔레콤은 그동안 경쟁사에 비해 보조금이 후하지 않았지만 이번 만큼은 넉넉히 책정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아이폰7 특화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KT는 아이폰7 시리즈 고객이 1년 뒤 차기 아이폰으로 쉽게 바꾸는 전용 프로그램 '아이폰 체인지업'을 14일 선보였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폰7 고객이 사용하면 아이폰을 1년 후 반납하고, 새 아이폰으로 기기변경 하면 남은 할부금을 면제해준다. 출고가의 최대 50%

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도 아이폰7 특화 프로그램 '프로젝트 505'를 선보였다. 프로젝트505는 아이폰7 고객이 구입 18개월 후 할부금의 최대 50%를 보장 받는 'H+클럽'에 가입하고, 아이폰7 수리 시 부담금을 5만원 이하로 낮추는 서비스다.

H+클럽은 18개월동안 할부원금의 50%만 납부하고 사용 중고폰을 반납함으로써 잔여 할부금을 보장받는다.

파손 보험 혜택은 H+클럽 가입 후 18개월 동안 지원되며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30%가 적용된다. /뉴시스

국립전주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국립전주대학교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